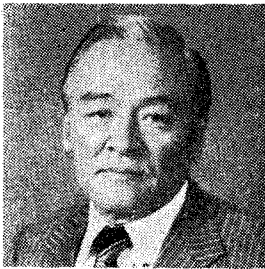


新年에 부쳐

1989年 新年 賀禮人事



金 生 基
(本會 會長)

己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李祥義 과기처장관, 朴弘植 특허청장을 비롯한 特許廳 關係官 그리고 本會 重鎮會員과 發明人 여러분을 모시고 新年賀禮會를 갖게 된 것을 眞心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제가 會長으로 취임하여 그 元年에 막중한 事業들을 大過없이 원활히 推進할 수 있도록 物心兩面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새해 人事를 드리게 되니 실로 感慨無量합니다.

돌이켜 보면 本會가 創立된지도 어언간 16년이 되었습니다. 人間에 비유하면 少年期를 지나 힘찬 靑年期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本會는 創立 이래 가장 活氣가 넘치고 있으며, 그동안 特許廳의 적극적인 支援과 會員 여러분의 뜨거운 聲援에 報答하기 위해 각종 多樣한 事業을 計劃하고 있습니다.

工業所有權界의 國內外 動向도 共產圈 國家와의 本格的인 交流 조짐이 보이면서 樂觀적으로 展開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가장 걱정했던 物質特許制度 導入의 충격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扎实的인 經濟成長을 이룩하였음은 물론 發明富國의 基盤을 다진 것은 國家的인 慶事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今年은 政府의 特別한 豫算配慮로 發明獎勵館을 韓國綜合展示場으로 擴大 移轉하는 등 획기적인 發明獎勵事業을 展開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本會 事業 活性化에 고무적인 한해가 될 것이 確實時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工業所有權界는 이제 開途國을 先導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지난해 中國 工業所有權界를 방문할 당시 實感할 수 있었던 일로, 이 자리를 빌어 우리의 責任이 막중함을 強調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樂觀的인 面이 있는 反面 悲觀的인 面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美國을 비롯한 先進諸國들은 自國의 産業保護와 貿易赤字를 줄이기 위해 각종 工業所有權 侵害訴訟과 추가적인 開放壓力을 끈질기게 加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 政府의 出帆과 함께 美國의 壓力은 더욱 加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與件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企業人 및 發明人 여러분의 技術開發力 提高와 特許管理를 위한 事前 對備策을 철저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本會는 工業所有權制度 定着과 特許管理의 效率性을 增大시키고, 汎國民的인 發明風土 造成을 위한 事業을 적극적으로 推進할 수 있도록 自國의 努力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特許廳은 물론 企業人 및 發明人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協調와 激勵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己巳年 새해를 맞아 그간 本會 活動에 同參해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하시는 일들도 모두 번창하시기를 祈願하면서 新年辭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9年 1月 9日